



브루노마스(오른쪽)과 듀엣곡 '아파트'를 발표한 로제.

# 솔로도 '블핑 파워'

로제, 브루노마스 듀엣곡 '아파트' 영미 차트 10위권 진입 제니 '만트라'와 선의의 경쟁... 지수 '꽃' 유튜브 10억 스트리밍

걸그룹 블랙핑크 멤버들이 팀 활동에 이어 솔로 가수로서 두각을 드러내고 있다.

3일 가요계에 따르면 로제의 '아파트', 제니의 '만트라', 리사의 룩스타 등 블랙핑크 멤버들의 솔로곡이 각각 국내외 음원차트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두고 있다.

먼저 로제는 팝스타 브루노 마스와의 듀엣곡 '아파트'로 전세계에 열풍을 불러왔다.

반복되는 후렴구가 주는 특유의 중독성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 곡은 세계 양대 차트로 불리는 영국 오피셜 싱글차트와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서 각각 2위와 8위를 기록했다.

'블랙핑크'



국내에서도 멜론, 지니, 벅스 등 주요 음원 플랫폼에서 발매와 함께 실시간·일간 차트 정상을 싹쓸이했다.

제니는 지난달 발표한 솔로곡 '만트라'로 로제와 음원차트에서 선의의 경쟁을 벌이고 있다.

전날 멜론 '톱 100' 차트에서는 '아파트'가 1위를 차지한 가운데 '만트라'가 5위에 올랐다. 지난달 29일 자 빌보드 '글로벌' (미국 제외) 차트에서는 로제가 1위, 제니가 4위를 차지했다.

이와 함께 리사는 '룩스타'로 9월 미국의 유명 대중음악 시상



리사 솔로곡 '문릿 플로어'

식 '2024 MTV 비디오 뮤직 어워즈'에서 '베스트 K팝' 상을 받았다. 4일에는 새로운 솔로곡 '문릿 플로어' (Moonlit Floor)를 발표했다.

지수의 경우 지난해 발표한 '꽃'이 최근 유튜브 뮤직에서 재생 수 10억회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블랙핑크 멤버들이 솔로 활동에서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는 까닭은 팀으로 활동하며 탄탄한 기반을 다졌기 때문이다.

이들은 2016년 데뷔해 '불장난', '마지막처럼' 등 솔한 히트곡을 발표하며 세계적인 가수로 발돋움했다.

2022년에는 정규 2집 '본 핑크' (BORN PINK)로 K팝 걸그룹 최초 빌보드 앨범차트와 영국 오피셜 앨범차트에서 모두 정상을 차지했다. 이들의 공식 유튜브 채널은 9510만 이상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전 세계 가수를 통틀어 가장 많은 구독자를 자랑한다. 멤버들이 솔로곡을 그리 많이 발표하지 않았음에도 대형 음반사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이들이 세계적인 영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룹 활동이 솔로 활동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한 셈이다.

2021년 솔로 데뷔 싱글 이후 솔로곡을 내지 않았던 로제는 최근 '아파트'를 함께한 브루노 마스, 에드 시런 등이 속한 애틀랜틱 레코드와 계약했다.

가장 먼저 솔로로 데뷔한 제니는 비온세, 아델, 해리 스타일스 등이 속한 컬럼비아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리사 또한 미국 3대 음원 유통사로 꼽히는 소니뮤직 산하 레이블 RCA 레코드와 파트너십을 맺었다.

전문가들은 블랙핑크가 데뷔 초부터 '해의 팝스타들과 경쟁하는 고급스러운 그룹'을 표방한 것이 주효했다고 분석한다. 적극적으로 해외 시장을 노리는 가운데 멤버들의 탄탄한 기량이 더해지며 남다른 파급력을 내게 되었다는 것이다.

김영대 대중음악평론가는 "블랙핑크는 데뷔 초부터 '아시안 걸 그룹'이라는 전형적인 이미지를 따르지 않았다"며 "좋은 전략을 세웠을 뿐 아니라 멤버들 개인기가 뛰어났기 때문에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걸그룹이 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 조용필 '그래도 돼' 확장판 MV 공개

박근형 등 배우들 대사 추가... 23일부터 전국투어 시작

정규 20집 '20'을 발매한 가왕(歌王) 조용필이 최근 타이틀곡 '그래도 돼' 확장판 뮤직비디오를 공개했다고 소속사 YPC가 밝혔다.

'그래도 돼' 확장판 뮤직비디오는 지난달 22일 공개된 본편 뮤직비디오에 배우들의 대사를 입힌 영상이다.

뮤직비디오는 병상에 앉은 주인공 이숨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는 과정을 그린다. 박근형, 전미도, 변요한이 이숨의 가족으로 출연한 가운데 본편에서는 배우들의 대사를 묵음으로 처리해 여러 해석을 낳았다.

이와 함께 '괴물', '부산행', '태극기 휘날리며' 등 영화 속 장면이 등장해 눈길을 끌었다. 유튜브에서는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영화와 현실을 혼동하는 가운데 가족과의 추억을 회상하는 것"이라는 한 누리꾼의 해석이 공감을 얻기도 했다.

확장판은 인물들의 대화 장면을 추가로 삽입해 상황을 유추할 수 있게 했다.

영상 중반 간호사는 이숨에게 "할머니, 할머니는 세모 모양이 좋으세요?"라는 질문을 던지며 이숨이 노인이라는 정보를 제공한다. 이어진 장면에서는 이숨이 세모 모양 조각을 네모 모양 틀에 넣으려 시도하자 박근형이 "여보, 천천히 해도 돼. 그래도 돼"라는 말을 건넨다.

뮤직비디오 각본과 연출은 돌고래유괴단 소속 이주형 감독이 맡았다. '20'은 조용필이 '헬로' (Hello) 이후 11년 만에 발표한 정규 앨범이다. '그래도 돼'를 비롯해 '타이밍' (Timing), '잘나', '라' 등 7곡을 수록했다.

조용필은 오는 23일 서울 올림픽공원 KSPO돐을 시작으로 '20집 발매 기념 조용필 & 위대한 탄생 콘서트' 전국투어를 진행한다. 그는 콘서트에서 음악 인생을 망라하는 히트곡과 함께 신곡을 라이브로 들려줄 예정이다. /연합뉴스



조용필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미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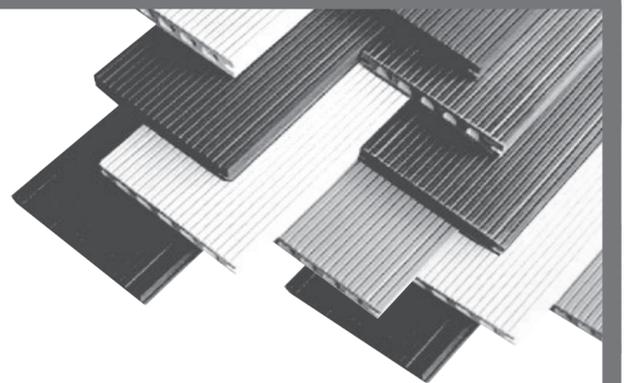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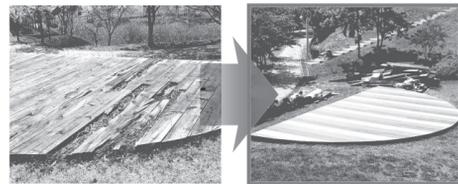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보증 Q-Mark



기존데크 →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